

간호학생의 자기표현 수준과 임상실습 스트레스와의 관계 연구

조 남 옥*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오늘날 고도로 복잡하고 도전적이며 빠르게 변화하는 건강관리 분야의 변혁의 흐름과 함께 간호교육과 실무에 있어서 변화는 하나의 필연적인 것이다. Harvey(1970)는 교육의 목표를 “내일의 세계를 효과적이고 생산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술을 학생들에게 습득케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는바 간호교육자들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조건 안에서 실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준비시켜야 하며, 동시에 미래의 실무를 위한 준비도 강조해야한다.

21세기를 대비한 전문직 간호사에게 요구되는 능력은 비판적 사고와 바람직한 의사소통술을 바탕으로한 대인관계의 형성 및 이를 통해 대상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자신과 대상자의 성숙을 도모하는 것으로 Watson(1979)도 대상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대상자의 요구와 문제를 인지하고, 요구를 충족시킴으로써 기대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간호사의 치료적인 의사소통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였다. 특히 Tanner(1990)는 ‘목표 지향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변화하는 사회

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간호사의 양성을 강조하고 있다.

간호사로서 필요한 자질을 시험하고 훈련받는 것이 임상실습 교육이라고 할 때, 간호학생의 의사소통 능력과 수준에 대한 고려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실제로 인간관계 또는 의사소통상의 어려움이 임상실습시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기도 하다. 전문대학 간호과 1학년 학생 172명을 대상으로 첫 임상실습 경험을 근거이론 패러다임에 따라 분석한 연구는 학생들은 지식이나 기술의 부족, 병원환경에 대한 두려움이나 생소함으로 인한 부담감, 환자에게 처음 다가갈 때나 간호사와의 의사소통상의 어려움 등의 부정적인 경험이 있음을 보고(문미숙, 1998)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임상실습 중인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대부분의 연구는 임상실습시 불안이나 스트레스 수준과 관련요인을 분석하는 연구가 대부분으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의사소통 능력과 실습시 스트레스와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임상실습 중인 간호학생의 의사소통 능력과 관련하여 자기표현 수준 및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를 조사하고, 간호학생의 자기표현 수준과 임상실습 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을 조사

* 순천향대학교 의대 간호학과 전임강사

하여 간호학생의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위한 중재법의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학생의 자기표현 수준을 조사한다.

둘째,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를 조사한다.

셋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표현 및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를 조사한다.

넷째, 간호학생의 자기표현 수준과 임상실습 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을 조사한다.

II. 문헌 고찰

1. 자기 표현

간호는 상호적인 인간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원만한 인간관계는 간호사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므로 간호학생에게 대인관계술의 교육과 실습역시 필수적인 것이다. 그러나 Lopez(1983)는 간호교육 과정에서는 간호사와 환자와의 관계에서 효과적인 의사소통법에 대한 지적인 이해는 하고 있지만 간호상황에서 그 기술을 실제 사용하는 것은 한계가 많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박상연(1994)은 타인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간호의 본질과 참는 것이 미덕이라는 유교적 전통을 바탕으로 한 여성역할의 사회화 과정은 간호사들로 하여금 의사소통법을 이해하고 있다고 해도 사용하기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자신의 권리, 의견, 생각, 욕구 등을 표현하는 행동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는데, 여기에 간호학생은 지식과 기술의 부족 및 평가를 고려해야 하는 입장으로 더더욱 자신의 의견이나 느낌에 대한 적절한 표현이 어려울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Alberti와 Emmons(1978)은 자기표현적 행동은 타인의 권리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편안하게 자기의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고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행동이므로 주장적 행동을 하는 사람은 자기의 가치를 높이며 자신을 좋아하게 되므로 이러한 자기표현적 행동을 하는 사람과 대하는 상대방 역시 자신을 높이 평가하게 되고 자신을 잘

표현하게 되며 그 역시 바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되어 상호간의 인간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Smith(1983)는 개인이 경험하는 갈등을 개인간 갈등과 개인내 갈등으로 설명하면서 개인내 갈등은 개인간 갈등에 영향을 미치며 개인간 갈등이 해결되지 못한채 내면화되면 개인내 갈등을 유발한다고 하였다. 간호학생이 임상실습 상황에서 경험하는 인간관계 및 의사소통 갈등이 적절한 방법으로 해소되지 못한채 내면화되면 간호학생 자신의 역할과 간호전문직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역할갈등이 적절한 방법으로 해소되지 못한 채 표출되면 인간관계 및 의사소통 갈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합리적 사고를 합리적 사고로 바꾸어 상대방의 인격과 권리를 존중하면서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 또는 의견 등을 마음 속에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전달하여 인간관계를 개선하고 자기능력 및 삶의 만족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자기표현 수준의 향상이 요구된다.

실제로 주장 훈련이 간호사들의 스트레스(Sheuan, 1987), 불안(Herman, 1977) 또는 역할갈등(박상연, 1994)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임을 보고하고 있어 간호학생의 자기표현 수준을 조사할 필요성이 높다.

2.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실습은 강의실에서 배운 이론을 간호실무가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확인하고 실제 간호 대상자에게 적용해 봄으로써 학생의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시켜 창의력과 응용력을 길러주는 학습과정이나 많은 학생들은 불안과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전문대학생 80명을 대상으로 박춘자(1997)는 연구자가 개발한 20문항의 설문지를 이용하여 임상실습시 불안을 야기하는 상황을 조사한 결과 '자신의 간호지식이 부족할 때'가 5점 만점에 4.18로 가장 높았으며, '자신의 역할이 애매모호할 때'가 4.11이고 '교수에게서 평가를 받을 때'와 '자신의 간호기술이 부족할 때'가 4.00, '실수를 할까봐

불안하다'가 3.81로 높은 불안을 보인 항목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연구에서 대인관계가 좋은 학생은 보통인 학생보다 기질불안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p < 0.05$). Kleehammer, Hart와 Keck (1990)은 교수의 지지가 없으면, 학생의 불안이 높아져서 학습능력이 떨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Arnold와 Nieswiadomy(1997)는 정신과 병동 실습을 앞둔 11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의사소통 훈련을 실시한 것이 학생들의 불안 감소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the State-Trait Anxiety Inventory(Spielberger, Gorsuch & Lushene, 1983)를 이용하여 연구한 결과 의사소통 훈련을 받은 65명의 실험군에서 훈련을 받지 않은 45명의 대조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불안의 저하를 보였음을 보고하였다.

임상실습 중에 간호학생들은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김 등, 1988) Lindop(1993)은 이러한 스트레스가 간호 학생의 간호학에 대한 전문직화 과정(professional socialization process)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문대학 간호과 1학년 학생 172명을 대상으로 첫 임상실습 경험을 근거이론 패러다임에 따라 분석한 문미숙(1998)의 연구는 학생들은 임상실습을 통해 간호현상을 파악하고 간호에 대한 애착을 형성한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실습 중 지식이나 기술의 부족, 병원환경에 대한 두려움이나 생소함으로 인한 부담감, 환자에게 처음 다가갈 때나 간호사와의 의사소통상의 어려움 등의 부정적인 경험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임상실습에 임하는 간호전문대학과 4년제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320명의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최현영(1991)이 작성한 9영역 59문항의 설문지를 통해 임상실습시 스트레스를 조사한 하나선, 한금선 및 최정(1998)의 연구에 의하면 학생들은 영역별로 13문항의 실습환경에서 평균 3.47, 8문항의 환자와 관련된 부분에서 3.39, 5문항으로 이루어진 수업과 관련된 영역에서 3.81, 13문항의 간호사와 관련된 영역에서 3.97, 3문항의 과제물과 관련된 영역에서 3.98, 인간관계와 관련된 8문항의 평균이 3.88,

실습지도 및 평가와 관련된 3문항의 평균이 3.88, 집단회와 관련된 3문항의 평균이 3.63, 오리엔테이션과 관련된 3문항의 평균이 3.62로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 간호학생들은 실습 중 주어지는 과제물의 작성에서 가장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다음이 간호사, 인간관계, 실습지도 및 평가와 관련한 부분에서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실습환경과 환자부분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반응의 차이를 ANOVA를 이용해서 분석한 결과 학년이 높을수록 스트레스반응이 높았고($p < .001$), 전문대 보다는 4년제 대학 재학생이 높았으며($p < .0001$), 실습 만족도와 관련해서는 '만족한다'는 집단보다 '그저그렇다' 또는 '불만족한다'는 집단에서 스트레스정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다($p < .05$).

간호전문대학 2학년 여학생 149명을 대상으로 간호학생의 스트레스정도를 조사한 김혜순(1983)의 연구에서도 대인관계, 환경, 간호행위, 역할, 신체적 요인 등 5개 요인 중에서는 역할요인이 가장 스트레스가 높았으며 다음은 환경, 간호행위, 대인관계, 신체적 요인 순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 요인 중에서는 '간호사나 수간호사와의 관계'가 가장 스트레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전문대학 2, 3학년 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환경, 대인관계, 역할의 3영역 20문항으로 된 스트레스 요인조사지를 이용한 박인순과 박영주(1993)의 연구에서는 역할과 관련한 스트레스가 가장 높고 다음이 환경, 대인관계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영역별 스트레스와의 관계는 2학년에 비해 3학년이 유의한 수준에서 역할과 관련한 스트레스가 높았으며 간호학 전공에 만족도가 높은 학생이 만족도가 낮은 학생에 비해 유의한 수준에서 3영역 모두에서 스트레스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자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자기표현 수준과 임상실

습 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로 충남지역 1개 4년제 간호학과와 1개 3년제 간호전문대학 간호과 학생을 대상으로 1998년 4월부터 10월에 걸쳐 조사하였다. 설문지를 이용한 자료수집은 천안지역 및 서울지역 종합병원에서 임상실습을 시작하여 최소 2주가 지난 후 실습 중에 이루어졌으며 자료수집에 응하여 준 4년제 간호학과 3학년, 4학년 학생 66명 및 전문대학 간호과 2학년 학생 77명을 합하여 총 143명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2. 조사 도구

- 1) 자기표현 평정 척도 : Rakos와 Schroeder의 자기표현 평정 척도를 우리 문화적 배경에 맞게 고친 변창진과 김성희(1980)의 자기표현 평정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내용요소 9문항, 음성요소 7문항 및 체언요소 4문항의 총 20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부정적인 내용으로 표현된 각 문항에 대한 반응은 '항상 그렇다'를 1점, '거의 그렇지않다'를 5 점으로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자기표현의 빈도가 적어서 자기표현 정도는 높은 것을 의미한다. 김성희(1982)가 실시한 자기표현 평정 척도의 반분신뢰도는 .795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는 .8275이다.
- 2) 임상실습시 느끼는 스트레스 측정도구 : 최현영(1991)과 전화연(1984)의 도구를 기초로 연구자가 작성한 다음 실습중인 간호학생 10명의 검토를 통해 내용 타당성을 확인한 후 사용하였다. 환경요인 19문항, 인간관계 요인 14문항, 간호사요인 14문항, 실습지도 및 평가요인 13문항으로 총 60문항으로 이루어졌다. 각 문항에 대한 학생의 반응은 '전혀 느끼지 않는다'를 1점, '매우 심하게 느낀다'를 5점으로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실습시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는 .9446이다.

3.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PC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자기표현 수준과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과 자기표현 및 임상실습 스트레스정도는 t-test 및 ANOVA를 하였으며 자기표현과 임상실습 스트레스와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다.

IV. 연구 결과

1. 대상학생의 일반적인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다. 대상 학생을 학교별로 보면 4년제 간호학과가 66명(46.2%), 3년제 간호과가 77명(53.8%)이며, 학년별로는 2학년이 77명(53.8%), 3학년이 39명(27.3%), 4학년이 27명(18.9%)이다. 건강상태는 '양호하다'가 63명(44.1%), '보통이다'가 69명(48.3%)으로 나타났으나 '나쁘다'고 응답한 학생도 11명(7.7%)으로 나타났다. 실제 경험하는 건강상의 문제를 응답하게 한 문항에서도 아무런 증상이 없다는 학생은 전체의 19.6%인 28명에 불과했으며, 80.4%인 115명이 한가지 이상의 증상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경험하는 문제로는 '피로'로서 24.5%인 35명이 응답하였고 그 다음은 두통(23명), 소화불량(18명), 생리불순(11명), 요통(11명) 순이었으며 빈혈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도 11.9%인 1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학업성적을 조사한 결과 대상학생의 84.6%인 121명이 평점 3.0-3.9의 성적을 받았으며, 6.3%인 9명이 평점 4.0이상의 좋은 점수를 그리고 9.1%인 13명이 2.0-2.9의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대인관계는 '나쁘다'는 반응을 보인 학생은 한명도 없었으며 65%인 93명이 '보통이다'로 35%인 50명은 '좋은 편이다'라고 하였다.

간호학과 선택동기는 '졸업 후 취업율이 높아서'가 58명(40.6%)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권유로'가 28명(19.6%)로 나

타났으며 '적성에 맞아서'와 '봉사직을 갖기 위해서'도 각각 27명(18.9%), 12명(8.4%)로 나타났고 '해외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많아서'가 2명(1.4%)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간호학과 입학 지망 순위에 대해서는 '제1지망'이 121명(84.6%)로 절대적으로 많았으나 '제2지망'과 '제3지망'도 19명(13.3%), 3명(2.1%)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학 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각각 69명(48.3%)가 '만족한다'와 '그저 그렇다'라고 하였으며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특 성		N(%)
학 교	4년제 간호학과	66(46.2)
	3년제 전문대학	77(53.8)
학 년	2학년	77(53.8)
	3학년	39(27.3)
	4학년	27(18.9)
건강상태	양호하다	63(44.1)
	보통이다	69(48.3)
	나쁘다	11(7.7)
학업성적 (지난학기)	평균 4.0이상	9(6.3)
	평균 3.0-3.9	121(84.6)
	평균 2.0-2.9	13(9.1)
대인관계	좋은 편이다	50(35.0)
	보통이다	93(65.0)
간호학과 입학 지망순위	제 1지망	121(84.6)
	제 2지망	19(13.3)
	제 3지망	3(2.1)
간호학과	고교 성적을 고려해서	9(6.3)
	선택동기 적성에 맞아서	27(18.9)
	졸업 후 취업율이 높아서	58(40.6)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권유로	28(19.6)
	봉사직을 갖기위해서	12(8.4)
	해외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많아서	2(1.4)
	본인이나 가족의 입원시 받은 인상 때문에	7(4.9)
간호학 전공에 대한 만족도	만족한다	69(48.3)
	그저 그렇다	69(48.3)
실습에 대한 만족도	불만족한다	5(3.5)
	만족한다	38(26.6)
	그저 그렇다	79(55.2)
	불만족한다	26(18.2)

단지 5명(3.5%)만이 '불만족한다'고 하였으나, 실습에 대한 만족도와 관련해서는 '만족한다'는 38명(26.6%)로 많이 줄고, '불만족한다'는 26명(18.2%)로 크게 높아져서 실습에 대한 불만족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 간호학생의 자기표현 및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

본 연구대상자들의 자기표현정도 총점은 50점에서 98점의 분포를 하고 있었으며, 총점 평균 75.10으로 나타났다. 자기표현 요소별로는 내용 요소의 평균은 3.65, 음성요소는 3.68, 체언요소는 4.13으로 체언요소 부분이 가장 표현정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자기표현 요소에 따른 문항별 반응을 살펴보면 내용요소 중에서는 '잘 아는 사이에서는 나 자신의 입장만 고려한다'와 '예의 바르지 못하다'가 평균 4.13과 4.12로 '전혀 그렇지 않다'는 반응을 보임으로써 자신에 대해 상대방을 고려하고 예의 바르다는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과를 많이 한다'와 '나는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참는다'는 경우의 빈도가 높게 나와 자기표현 점수는 각각 3.06과 3.0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음성 요소에서는 '억양이 어색하다'는 4.06점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는 반응을 보임으로써 억양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말을 입안에서 중얼거린다'와 '에-, 음-' 등 말이 중간에 끊어진다'도 3.90으로 그 빈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단호하게 말하지 못한다'는 빈도가 가장 많아 자기표현 점수는 3.10으로 음성요소 중 가장 잘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항목으로 구성된 체언요소는 '손을 비비거나 발을 굴리는 등 자세가 진지하지 못하다', '말할 때 상대를 바로 보지 못한다', '웃거나 찡그리는 등 얼굴표정이 진지하지 못하다'가 모두 4점이상으로 그 빈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자기표현적 수준이 낮게 나타난 것은 '몸이 어딘가 굳어있다'로 3.87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간호학생들은 바른 자세와 적합한 억

양 및 태도로 의사표현을 하며 상대방을 잘 배려 하지만 상대적으로 사과를 많이하고, 자신이 말하고 싶은 바를 단호하게 말하지 못하며 대화의 마

지막에 가서야 말하거나 또는 참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간호학생의 자기표현 정도

문항	항상 그렇다	자주 그렇다	보통이다	가끔 그렇 지 않다	전혀 그렇 지 않다	mean±S.D
	N(%)	N(%)	N(%)	N(%)	N(%)	
나는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참는다.	6(4.2)	48(33.6)	36(25.2)	43(30.1)	10(7.0)	3.02±1.04
대화의 마지막에 가서야 나의 의사를 이야기 한다.	2(1.4)	35(24.5)	56(39.2)	28(19.6)	22(15.4)	3.23±1.03
내용이 분명하지 못하다.	0(0.0)	17(11.9)	47(32.9)	40(28.0)	39(27.3)	3.71±1.00
사과를 많이 한다.	8(5.6)	27(18.9)	67(46.9)	30(21.0)	11(7.7)	3.06±.97
예의바르지 못하다.	1(0.7)	4(2.8)	33(23.1)	44(30.8)	61(42.7)	4.12±.91
내 의사와는 다른 부득이한 이유를 내세워 변명한다.	0(0.0)	1(0.7)	47(32.9)	47(32.9)	48(33.6)	3.99±.83
잘 아는 사이에서는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는다.	3(2.1)	10(7.0)	28(19.6)	56(39.2)	46(32.2)	3.92±.99
잘 아는 사이에서는 나의 행동에 대해 설명하지 않는다.	1(0.7)	23(16.1)	34(23.8)	51(35.7)	34(23.8)	3.66±1.04
잘 아는 사이에서는 나 자신의 입장만 고려한다.	0(0.0)	8(5.6)	26(18.2)	48(33.6)	61(42.7)	4.13±.91
중얼거리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알아듣기 어려울만큼 약하게 말한다.	0(0.0)	17(11.9)	36(25.2)	32(22.4)	58(40.6)	3.92±1.06
단호하게 말하지 못한다.	2(1.4)	50(35.0)	42(29.4)	29(20.3)	20(14.0)	3.10±1.08
말을 입안에서 중얼거린다.	0(0.0)	14(9.8)	39(27.3)	38(26.6)	52(36.4)	3.90±1.01
억양이 어색하다.	0(0.0)	11(7.7)	33(23.1)	35(24.5)	64(44.8)	4.06±.99
‘에-’ ‘음-’ 등 말이 중간에 끊어진다.	0(0.0)	15(10.5)	38(26.6)	37(25.9)	53(37.1)	3.90±1.03
말하기 전에 주저주저한다.	2(1.4)	26(18.2)	41(28.7)	49(34.3)	25(17.5)	3.48±1.03
말하기 전이나 말하는 도중에 서두른다.	2(1.4)	31(21.7)	42(29.4)	45(31.5)	23(16.1)	3.39±1.04
말할 때 상대를 바로 보지 못한다.	2(1.4)	9(6.3)	26(18.2)	38(26.6)	68(47.6)	4.13±1.01
웃거나 찡그리는 등 얼굴표정이 진지하지 못하다.	1(0.7)	9(6.3)	20(14.0)	50(35.0)	63(44.1)	4.15±.94
손을 비비거나 발을 굴리는 등 자세가 진지하지 못하다.	1(0.7)	5(3.5)	17(11.9)	38(26.6)	82(57.3)	4.36±.88
몸이 어딘가 굳어있다.	4(2.8)	14(9.8)	35(24.5)	34(23.8)	56(39.2)	3.87±1.13

임상실습시 스트레스 정도를 요인별로 보면 실습지도 및 평가영역이 평균 3.73으로 가장 높고 다음이 간호사 영역이 3.59, 인간관계영역이 3.32, 환경요인이 3.30 순으로 나타났다. 〈표 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요인별로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난 문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환경 요인에서는 ‘수업과 실습 일정이 여유가

없을 때’가 3.86으로 스트레스가 가장 높게 나타난 항목이며 다음은 ‘실습 중 학생이 쉴 자리가 너무 없는 경우’가 3.85로 그리고 ‘오래 서 있어야 하는 경우’가 3.7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낮 번시 아침에 집에서 일찍 나와야 할 때’는 3.23으로 ‘처음보는 새로운 기구나 설비로 인해서는’ 2.94의 낮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높은 문항

영역	문항	임상실습 스트레스 (평균±표준편차)
환경	수업과 실습 일정이 여유가 없는 경우	3.86±.84
	실습 중 학생이 쉴 자리가 너무 없는 경우	3.85±.83
	오래 서 있어야 하는 경우	3.78±.83
인간관계	의사가 간호사를 자기의 보조자로만 여기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4.05±.82
	환자나 보호자, 간병인이 간호학생이라고 무시하거나 거부할 때	3.57±.86
	의대생과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 느낌이 들 때	3.55±1.00
간호사	권위적이고 불친절한 간호사를 보았을 때	4.01±.92
	사람들이 간호사의 역할이 무엇인지 모르며, 전문지식이 필요없다고 여길 때	3.94±.94
	간호사가 독자성이 부족하고 의사의 보조역할만을 하는 것을 보았을 때	3.78±.94
실습지도 및 평가	과제물의 분량이 너무 많거나 형식에 맞추어야 할 때	4.19±.86
	과제물의 내용을 조작해서 써야 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반복해서 써야 하는 경우	4.08±.86
	실습평가가 확실한 기준이 없이 주관적인 것 같을 때	3.94±.86
	과제물로 평가받을 때	3.84±.95
	실습을 잘 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줄 때	3.80±.84
	자신의 역할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3.78±.81

환자, 보호자, 의사, 동료학생 등과의 관계를 포함한 인간관계요인에서는 ‘의사가 간호사를 자기의 보조자로만 여기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에서 4.05로 가장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다음은 ‘환자나 보호자, 간병인이 간호학생이라고 무시하거나 거부할 때’와 ‘의대생과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 느낌이 들 때’가 각각 3.57과 3.55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외에도 ‘동료학생과 같이 행동하는데 있어 너무 의견차이를 보일 때’가 3.50으로 높게 나타났다. ‘간호보조원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2.29로 거의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환자를 간호해야 할 때’와 ‘의식이 없어 의사소통이 힘든 환자를 간호해야 할 때’도 각각 2.89와 2.81로 낮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이 실습하는 상황에서 가장 많이 만나게 되는 간호사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간호사의 역할 및 간호사에 대한 인식을 포함하는 간호사요인에서는 평균 3.0 이하의 항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요인 중 가장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난 항목은 ‘권위적이고 불친절한 간호사를 보았을 때’가 4.01이었으며 ‘사람들이 간호사의 역할이 무

엇인지 모르며 전문지식이 필요없다고 여길 때’와 ‘간호사가 독자성이 부족하고 의사의 보조역할만을 하는 것을 보았을 때’가 각각 3.94와 3.78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간호사가 간호학생을 경계하거나 싫어하고 무관심한 경우’가 3.64, ‘간호사가 학생이라고 무시하며 반말을 하는 경우’는 3.53, 그리고 ‘간호사가 질문서 잘 몰라서 난처해 하거나 불친절하게 가르쳐주는 경우’도 3.48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요인 중 학생들이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요인으로 나타난 실습지도 및 평가 요인에서는 ‘과제물의 분량이 너무 많거나 형식에 맞추어야 할 때’가 4.19로 본 요인뿐 아니라 전체 60문항 중 가장 높은 스트레스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과제물의 내용을 조작해서 써야 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반복해서 써야 하는 경우’가 4.08, 그리고 ‘과제물로 평가받을 때’가 3.84로 높게 나타남으로써 실습시 과제물로 인한 스트레스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습평가가 확실한 기준없이 주관적인 것 같을 때’가 3.94, ‘실습을 잘 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줄 때’도 3.80으로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며 '자신의 역할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도 3.78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수업에서 배우지 못한 부분을 실습할 때'나 '수업이 너무 이론적이기 때문에 실습에 적용할 수 없는 경우'는 각각 3.40과 3.48로 상대적으로 스트레스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 간호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표현 및 임상실습 스트레스

간호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표현 정도는 <표 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인간관계가 좋은 집단의 자기표현은 평균 79.3이고 보통인 집단은 72.8로 인간관계가 좋은 집단이 보통인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건강상태에 따른 자기표현 정도는 보통인 집단의 평균이 72.3인데 반해 양호한 집단이 77.8, 나쁜 집단이 77.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건강상태가 양호하거나 나쁜 집단의 자기표현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1$).

학업성적과 관련해서는 지난학기 평점이 3.0-3.9에 속하는 집단이 자기표현 점수가 평균 74.7로 가장 낮고 다음은 평점 2.0-2.9에 속하는 집단이 76.4이며 평점 4.0이상을 받은 학생집단의 자기표현 점수가 80.1로 가장 높았으나 집단간 통계적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학과 지망순위와 관련해서는 제3지망을 한 학생집단의 자기표현 정도가 83.7로 가장 높고, 다음은 제2지망한 학생집단이 75.4, 제1지망 한 학생집단은 74.9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인 유의성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에 대한 만족도에 따른 자기표현 정도는 만족한다는 학생집단의 자기표현 점수가 74.9로 가장 낮고, 그저 그렇다는 학생집단이 75.2로 조금 더 높으며, 불만족한다는 학생집단이 75.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습에 대한 만족도에 따른 자기표현 정도는 통계적 유의성은 없지만 실습에 만족하는 학생집단의 자기표현이 77.9로 가장 높고, 불만족하다는 학생집단이 75.2, 그저 그렇다

는 학생집단이 73.7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인간관계와 건강상태에 따라서는 자기표현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학업성적, 지망순위, 전공에 대한 만족도 및 실습에 대한 만족도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학을 '1순위로 지망'한 학생과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학생에서 자기표현 정도가 낮게 나타났으나 '학업성적'이 좋고 '실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학생의 자기표현 점수가 다른 집단의 학생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표현

variables		mean±S.D	t/F
인간관계	좋은 편이다	79.3200± 8.622	4.03***
	보통이다	72.8387± 9.457	
건강상태	양호하다	77.8413± 8.843	6.2280**
	보통이다	72.2609± 9.043	
	나쁘다	77.2727±13.214	
학업성적	평점 4.0이상	80.1111± 7.061	1.4278
	평점 3.0-3.9	74.7273± 9.712	
	평점 2.0-2.9	76.4167± 9.672	
지망순위	제 1지망	74.8512± 9.750	1.2324
	제 2지망	75.3684± 9.257	
	제 3지망	83.6667± 5.508	
전공에 대한 만족도	만족한다	74.9420± 9.874	0.0221
	그저 그렇다	75.2319± 9.693	
실습에 대한 만족도	불만족한다	75.6000± 7.335	2.5268
	만족한다	77.9474±10.081	
실습에 대한 만족도	그저 그렇다	73.7089± 9.116	2.5268
	불만족한다	75.1923±10.068	

* $p < .05$, ** $p < .01$, *** $p < .001$

간호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를 살펴보면 <표 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인간관계가 보통이라고 응답한 학생집단의 스트레스 정도는 평균 210.7이고 좋은 편이라고 응답한 학생집단의 스트레스 평균은 203.2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인간관계가 좋은 학생집단이 그렇지 않다는 학생집단보다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학생의 건강상태와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건강상태가 양호한 집단의 스트레스 평균이 206.7로 가장 낮고

보통인 집단의 평균은 207.7, 건강상태가 나쁜 집단의 스트레스는 215.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으로써 건강상태가 안좋을수록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적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지난해 성적평점이 중간에 속하는 3.0-3.9 집단이 207.7로 가장 낮고, 다음은 평점 4.0이상을 받은 학생집단이 209.9였으며, 성적이 2.0-2.9로 가장 낮은 집단에서 스트레스 평균이 210.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학과 지망순위와 관련해서는 '제1지망'한 학생집단의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205.7, '제2지망'한 학생집단이 216.8, '제3지망'한 학생집단에서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250.0으로 나타남으로써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간호학과를 '제1지망'한 학생집단에서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01$).

전공에 대한 만족도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

〈표 5〉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

variables		mean±S.D	t/F
인간관계	좋은 편이다	203.2000±28.433	-1.62
	보통이다	210.7097±25.233	
건강상태	양호하다	206.6667±27.146	.5321
	보통이다	208.1739±26.137	
	나쁘다	215.6364±26.692	
학업성적	평점 4.0이상	209.8889±26.507	.0830
	평점 3.0-3.9	207.6777±26.088	
	평점 2.0-2.9	210.5000±33.841	
지망순위	제 1지망	205.6694±25.782	5.6202**
	제 2지망	216.8421±25.872	
	제 3지망	250.0000±19.698	
전공에 대한 만족도	만족한다	200.6377±25.298	6.2411**
	그저 그렇다	214.1449±26.371	
실습에 대한 만족도	만족한다	191.1316±25.517	16.8021***
	그저 그렇다	210.4684±22.626	
	불만족한다	225.6154±25.798	

* $p<.05$, ** $p<.01$, *** $p<.001$

는 '만족한다'는 학생집단이 200.6, '그저 그렇다'는 학생집단이 214.1이며 '불만족한다'는 학생집단이 227.2로 가장 높게 나타남으로써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학생이 낮은 학생보다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01$). 실습에 대한 만족도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만족한다'는 학생집단의 실습 스트레스 정도가 평균 191.1, '그저 그렇다'는 학생집단의 스트레스는 210.5이나 '불만족한다'는 학생집단의 스트레스는 225.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실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집단이 만족도가 낮은 집단보다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4. 자기표현과 임상실습 스트레스와의 상관성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표현과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일반적 특성과 자기표현 및 임상실습 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를 보았다(스트레스와 자기표현은 점수가 클수록 높고, 제 일반적 특성은 값이 낮을수록 높은 것임). 〈표 6〉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자기표현이 좋을수록 낮고, 전공 및 실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낮으며, 간호학 지망순위가 높을수록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전공만족도($p<.001$)와 실습만족도($p<.001$) 및 지망순위($p<.01$)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표현은 실습만족도가 높고, 인간관계, 건강상태 및 학업성적이 좋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인간관계($p<.001$)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만족도가 높으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실습만족도도 높고($p<.001$), 인간관계가 좋으면 자기표현 정도가 높고($p<.001$), 전공만족도($p<.001$)와 실습에 대한 만족도($p<.01$)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는 전공만족도($p<.001$) 및 인간관계($p<.001$)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제 변수간 상관관계

	스트레스	자기표현	전공만족도	실습만족도	지방순위	인간관계	건강상태	학업성적
스트레스	1.0000							
자기표현	-.0030	1.0000						
전공만족도	.2861**	.0177	1.0000					
실습만족도	.4832**	-.1158	.4795**	1.0000				
지방순위	.2561*	.0950	.1493	.0512	1.0000			
인간관계	.1354	-.3212**	.2766**	.2166*	-.1787	1.0000		
건강상태	.0734	-.1739	.2746**	.1636	.0024	.2792**	1.0000	
학업성적	.0153	-.1410	.0085	-.1084	.0291	-.0106	-.0059	1.0000

* P<.01, ** P<.001

V. 논 의

급변하고 있는 보건의료체계와 간호대상자의 요구는 21세기를 대비한 전문직 간호사를 양성해야 하는 간호교육에도 커다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대학과정에서 이론과 지식을 실무에 통합할 수 있는 적용능력을 훈련하고 성취할 수 있는 임상실습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 결과 기존의 행위주의 모형에 입각한 간호교육에서 존재론적 입장에서의 간호와 학생의 최대한의 간호 실천에 초점을 맞춘 임상실습에 중심을 둔 현상학적 모형이나 비판적 대화 및 토론을 중시하는 비판적 모형으로의 이행이 요구되고 있다(홍경자 등, 1998). 이 중심에 비판적 사고와 바람직한 의사소통술이 놓여있다.

그러나 간호학생의 의사소통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과 임상실습 경험과의 관련성을 보고한 연구가 거의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임상실습 중인 간호학생의 자기표현 수준을 통해 현시점에서 간호대학생들의 의사소통 수준을 조사하고 이러한 자기표현 수준과 임상실습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조사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분석 결과 간호학생들의 자기표현 수준은 20점에서 100점의 분포 중 평균 75.10으로 전체적으로는 높은 수준이었으며 자기표현의 요소별로 보면 체언요소가 4.13으로 가장 높고, 다음이 음성요소 3.68 순이었으며 내용요소가 평균 3.65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용요소 중에서도 '나는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참는다'가 가장 빈도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음성요소 중에서는 '단호하게 말하지 못한다'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변창진과 김성희(1980)가 우리나라에서는 유교적 전통과 그 영향으로 매사에 참는 것이 미덕이라는 생각 때문에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솔직하게 말하지 않고 입을 다물어 버리거나 심지어는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과 반대되는 행동이나 말을 해 놓고 돌아서서 그렇게 행동한 자신에 대해 혼자 후회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지적한 것과 일치하며 참는 것이 미덕이라는 유교적 전통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여성역할의 사회화 과정이 비록 개인이 의사소통법을 이해하고 있다고 해도 사용하기 어렵게 한다는 박상연(1994)의 설명과도 일치되는 결과이다.

그러나 간호학생이 임상실습 상황에서 경험하는 인간관계 및 의사소통 갈등이 적절한 방법으로 해소되지 못한채 내면화되면 간호학생 자신의 역할과 간호 전문직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의사결정과 대안 마련의 가설에 대한 비판적 사고와 보건의료문제 해결을 위한 의료전문 인간의 협조적 관계 유지를 통해 21세기의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전문직 간호사로 성장하는 데도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간호학생이 자신의 의견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원인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규명을 위한 연구와 다양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학생자신의 의견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주장훈련 프로그램의 효과를 보는 실험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표현 정도와 관련해서는 건강상태는 양호한 집단에서 보통인 집단보다 자기표현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건강상태와 학업성적에서는 양호하거나 성적이 좋은 집단과 함께 건강상태가 나쁘거나 평점도 가장 낮은 집단의 자기표현이 건강상태가 보통이거나 평점이 3.0대로 중간인 학생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자기표현정도가 성적이나 건강과는 독립된 개인의 특성인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간호학 지망순위가 '제1지망'인 학생집단과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만족한다'는 학생집단에서 자기표현 정도는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간호사의 '봉사'와 '희생'의 이미지로 인해 평소 자신을 주장하기 보다는 남에 대한 배려가 많은 학생들이 간호학을 선택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못하였지만 실습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만족도가 높은 집단에서 자기표현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간호상황이 대부분 대인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할 때 Alberti와 Emmons (1978)가 '자기표현적 행동은 상호간의 인간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한 내용과 일치되는 것이다.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관련된 본 연구의 결과는 요인별로 비교하여 보면 실습지도 및 평가영역에서 3.73으로 가장 높고, 다음이 간호사 영역으로 3.59, 인간관계 영역이 3.32 순이었으며 환경요인에서 스트레스가 3.30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최현영(1991)의 연구결과와 비교하여 보면 전체적으로 스트레스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별로 보면 박인순과 박영주(1993)의 연구에서는 역할, 환경, 대인관계 순으로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실습지도 및 평가 영역에 학생들의 역할이 포함된 것을 고려하면 부분적으로 일치하나 환경에 대한 스트레스가 본 연구에서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최현영(1991)의 연구에서도 과제물에 대한 스트레스가 3.98로 가장 높으며 다음이 간호사에 대한 스트레스 3.97, 인간관계가 3.88인 반면 본 연구에서는 간호사영역이 3.59, 인간관계 영역이

3.32로 특히 간호사와 인간관계 영역에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과제물과 관련해서는 본 연구에서도 '과제물의 분량이 너무 많거나 형식에 맞추어야 할 때'가 4.19로 전체 60문항 중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문항이었으며, 다음이 4.08인 '과제물의 내용을 조작해서 써야 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반복해서 써야 하는 경우'로 임상실습시 과제물로 인한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손수경 등(1997)이 임상실습을 마친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상학적 방법을 통해 간호학생의 임상경험을 분석한 연구결과 학생들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늘 비교하게 되므로 특히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열등감을 경험하게 되고,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와 인간관계를 관찰하게 되면서 간호학도로서 열등감을 느끼게 되며 이것이 개인의 내적 갈등을 더욱 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의사가 간호사를 자기의 보조자로만 여기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인간관계 요인 중 가장 스트레스 정도가 높다고 나타난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관련한 본 연구의 결과에서 통계적인 유의성이 뒷받침되지는 않았지만 인간관계가 좋은 집단에서 스트레스가 적었으며, 건강상태가 양호할수록 스트레스 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업성적은 지난학기 평점을 기준으로 높거나 낮은 학생집단이 중간집단 보다 스트레스를 높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성적에 더 민감하고 실습을 잘해야겠다는 부담감이 큰 때문으로 해석된다. 간호학과 지망순위가 '1순위'인 학생집단이 가장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적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강현숙(1992), 박재경, 유경원 및 박명희(1986)의 연구에서 간호학 선택을 자의로 한 학생이 타의로 한 학생보다 실습만족도가 높다는 보고와 유사한 결과이며, 전공에 대한 만족도와 실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집단에서 스트레스가 적은 결과는 여러 연구(강현숙, 1992)에서도 같게 나타남으로써 실습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이 고

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손수경 등(1997)의 연구에서도 간호학생들은 '환자와 어떻게 이야기 할 것인가가 가장 힘들었어요', '실습에서는 일 보다는 인간관계가 힘들어요'라고 자신의 경험을 말하고 있어 간호학생의 자기표현 수준과 임상실습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분석해 보고자 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나 본 연구에서 규명해 보고자 했던 자기표현 수준과 임상실습 스트레스와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본 연구결과를 포함하여 간호학생의 실습스트레스의 결과가 상당히 다양하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실습하는 병원마다의 객관적인 차이나 각 간호 교육기관마다의 정책, 교육여건 또는 교육방법이 다를 수 있다는 것과 함께 실습스트레스를 측정하는 도구의 적합성 여부에도 원인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자기표현과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 및 자기표현 수준과 실습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탐색연구로 4년제 간호학과 학생 66명, 3년제 전문대학 간호과 학생 77명을 포함하여 총 143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 수집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간호학생의 자기표현은 내용요소가 3.65, 음성요소가 3.68, 체언요소가 4.13으로 체언요소 부분이 가장 표현정도가 높다.
- 2)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실습지도 및 평가영역이 평균 3.73으로 가장 높고 다음이 간호사 영역 3.59, 인간관계 영역이 3.32, 환경요인 3.30 순으로 나타났다.
- 3) 자기표현은 인간관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P < .001$).
- 4)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전공에 대한 만족도($P < .001$), 실습에 대한 만족도($P < .001$) 및 간호학과 지망순위($P < .01$)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 5) 자기표현과 임상실습 스트레스간에는 통계적으로

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 1) 간호학생의 자기표현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 2) 간호학생의 현상학적 임상실습 경험을 토대로 한 임상실습 스트레스 측정도구의 개발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강현숙 (1992). 임상실습시 간호학생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방법에 관한 연구. 생활간호, 7, 167-175.
- 김은정, 노상옥, 이정선, 이주미, 이주연 및 정경이 (1988). 간호학생의 실습과 관련된 스트레스 실태조사. 연세간호, 12, 42-76.
- 김성희 (1982).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주장훈련의 효과. 학생생활지도연구(경북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15, 1-30.
- 김혜순 (1983). 일부 간호학생이 임상 실습장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요인에 관한 기초조사 연구. 경기간호전문대학 논문집, 14, 105-124.
- 문미숙 (1998). 간호학생의 첫 임상실습 경험. 한국간호교육학회지, 4(1), 15-27.
- 박상연 (1994). 주장훈련과 가치명료화 훈련이 간호사의 갈등정도와 갈등관리 양식에 미치는 효과.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 박사학위논문.
- 박인순 및 박영주 (1993). 임상실습시 간호학생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방법에 관한 연구. 조선대병설간호전문대학 논문집, 12, 113-127.
- 박재경, 유경원 및 박명희 (1986). 간호전문대학생의 자아개념과 임상실습 만족도와의 관계 연구. 조선대병설전문대논문집, 7, 137-151.
- 박춘자 (1997). 간호학생이 임상실습시 느끼는 불안의 정도와 불안야기 상황 연구. 간호교육학회지, 3, 34-45.
- 변창진 및 김성희 (1980). 주장훈련 프로그램. 학생지도연구(경북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13, 51-85.

- 손수경, 정복래, 정승은, 박진미, 이수연 (1997). 간호학생의 임상실습경험. 한국간호교육학회지, 3, 59-77.
- 전화연 (1984). 임상실습시 간호학생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요인에 관한 분석적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현영 (1991). 간호학생의 임상수행 능력과 스트레스 요인과의 관계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하나선, 한금선 및 최정 (1998). 간호학생의 스트레스 지각, 대처유형, 스트레스 반응간의 관계. 대한간호학회지, 28(2), 358-368.
- 홍경자 외 8인. (1998). 학부 교과과정 개편을 위한 연구. 서울대학교 간호학논문집, 12(2), 258-279.
- Alberti, R. E. & Emmons, M. L. (1978). Your perfect right : A guide to assertive behavior. San Luis Obispo, Calif.
- Arnold, W. K., & Nieswiadomy, R. M. (1997). A structured communication exercise to reduce nursing students' anxiety prior to entering the psychiatric setting.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36(9), 446-447.
- Harvey, O. J. (1970). Belief systems and education : Some implications for change. In J. Crawford(ed). The affective domain. Washington, C.: Communications Service Corporation. 67-91.
- Herman, S. Y. (1977). Becoming assertive : A guide for nurses. Wadsworth Health Science.
- Jacobson, E., & McGrath, H. M. (1983). Nurses under stress. New York: John Wiley & Sons.
- Kleehammer, K., Hart, A., & Keck, J. (1990). Nursing students' perceptions of anxiety-producing situations in the clinical setting.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29, 183-187.
- Lindop, E. (1993). A complementary therapy approach to the management of individual stress among student nurse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18, 1578-1585.
- Lopez, K. (1983). Role modeling interpersonal skills with beginning nursing students : Gestalt techniques. J.P.N.E., 22, 119-122.
- Sheuan, L. (1987). Effect of stress coping intervention on level of stress, burnout, and assertiveness experiences by nurses in Taiwan. Republic of China, Dissertation.
- Smith, C. M. (1983). Concept of organization dynamics : Conflict. In S. F. Jacobson, & H. M. McGrath(ed). Nurses under stress. New York: John Wiley.
- Speilberger, C. D., Gorsuch, R. E., & Lushene, R. E. (1983). STAI manual.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Tanner, C. A. (1990). Reflection on the curriculum revolution.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29(7), 295-299.
- Watson, J. (1979). Nursing : The philosophy and science of caring. Boston: Little, Brown.

– Abstract –

Key concept : Assertiveness, Clinical stress

The Relationship Between Assertiveness and Clinical Stress in Nursing Students

*Cho, Nam Ok**

A descriptive-explanatory design was employed in this stud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identify the level of assertiveness and clinical stress and the relationships between assertiveness and clinical stress in nursing students. A convenient sample of 143 nursing students was used for the stud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1) The level of assertiveness of nursing students was 3.65 in domain of contents, 3.68 in domain of voice, and 4.13 in domain of body language. Thus the level of

assertiveness of nursing students was higher in body language.

- 2) The level of clinical stress of nursing students was 3.73 in domain of clinical education and evaluation by professors, 3.59 in domain of nurses, 3.32 in domain of human relationships, and 3.30 in domain of environment. Thus the level of clinical stress of nursing students was higher in clinical education and evaluation by professors.
- 3) The assertiveness of nursing students was found significantly related to human relationships.
- 4) The clinical stress of nursing students was found significantly related to satisfaction of nursing,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and priority of candidate for nursing.
- 5) The assertiveness of nursing students was not found significantly related to clinical stress in nursing students.

* Full-time Instructor, Department of Nursing, Soonchunhyang University